

Ⅱ

과실류 시장동향



- 1 과실류 시장개황
- 2 감귤 시장동향
- 3 멜론 시장동향
- 4 딸기 시장동향

1. 과실류 시장개황

가. 생산동향

- 러시아의 과실류는 88%의 과실류가 가족형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신선 형태 및 캔 형태 가공을 거쳐 소비지에서 소비되며 일부 과실류는 재래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있으며, 상업용의 과실은 주로 Krasnodar(44%), Voronezh(15%), Lipetsk(8%) 등 세 개의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며 보통 6월에서 1월 사이 소비지에서 유통됨
-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은 사과로 2006년 기준 1,617천톤이 생산되었으며, 건포도 435천톤, 포도 243천톤, 딸기 235천톤, 라스베리 184천톤 등으로 나타남. 딸기, 라스베리, 구스베리와 등 베리류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식품으로서 주로 산간지역이나 작은 규모의 개인소유 과수원에서 재배됨
- 최근 6년간의 연평균 생산 증감률을 보면 건포도가 연평균 8.83%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으며, 배 8.61%, 러시아의 전통 과일인 딸기 6.07%, 라스베리 5.62%, 구스베리 5.31% 순의 증가율을 보임. 반면, 체리 -11.79%, 신버찌 -7.62%, 복숭아 -6.91% 등은 감소세를 보이기도 함



【러시아의 사과 과수원(Krasnodar)】



【 Gala 사과 생산품(Krasnodar)】

- 생산 사과와 주요 품종은 Red Chief, Golden Delicious, Smerenka(러시아종), 후지, Granny Smith, Gala 등이며, 배의 경우 Anjou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음. 2006년 사과와 재배면적은 348천ha, 배의 경우 38천ha에 이르렀으며 생산량의 경우 사과는 1.62백만톤, 배는 68천톤으로 집계됨

〈과실류 생산량〉

(단위 : 톤)

품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평균 증감율
사과	1,640,000	1,950,000	1,690,000	2,030,000	1,773,000	1,617,000	-0.28%
건포도	285,000	347,000	345,000	396,000	431,500	435,000	8.83%
포도	234,930	217,380	348,300	318,300	333,320	243,490	0.72%
딸기	175,000	200,000	205,000	215,000	228,000	235,000	6.07%
라스베리	140,000	165,000	150,000	170,000	180,500	184,000	5.62%
신버찌	165,000	175,000	200,000	225,000	230,000	111,000	-7.62%
자두	125,000	152,000	160,000	178,000	168,450	98,000	-4.75%
배	45,000	90,000	72,000	95,000	74,000	68,000	8.61%
구스베리	50,000	60,100	59,030	60,810	63,370	64,750	5.31%
체리	88,000	85,000	90,000	100,000	90,000	47,000	-11.79%
살구	50,000	60,740	75,230	80,000	72,000	38,000	-5.34%
복숭아	32,000	45,000	40,000	50,400	42,000	22,370	-6.91%

자료 : FAO Statistics

나. 수입동향

■ 전체 수입동향

- 러시아의 2007년 기준 과실류 수입규모는 3,723백만불, 5,087톤으로 3년 평균 31.3%의 높은 과실류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러시아 내의 과실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식을 선호하는 러시아의 식문화 변화 바람에 따라 과실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량 역시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과실류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으나 전체 과실류 소비량의 8%를 차지하는 오렌지 및 감귤류로 2007년 기준 1,248 천톤, 832 백만불이 수입되었으며 3년 평균 수입 증가율 역시 29.6%로 빠른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그 뒤로는 러시아 과일 소비의 30% 차지하는 사과 931천톤, 453 백만불, 배 381천톤, 314 백만불 등의 순서를 보임
- 최근 3년간 수입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배가 3년 평균 44.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포도 36.5%, 파인애플 33.3%, 살구·자두 33.1% 순의 수입증가율을 보임

〈과실류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톤)

품목	2005		2006		2007		수입액 증감율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합계	2,125,092	3,998,088	2,979,222	4,659,573	3,723,188	5,087,155	31.3%
감귤류	480,278	943,747	706,592	1,209,668	832,079	1,248,052	29.6%
사과	293,739	720,817	351,849	815,084	452,994	931,088	24.7%
배	155,585	313,427	203,080	327,107	314,779	380,625	44.4%
바나나	449,211	862,399	482,315	899,303	586,504	981,758	14.7%
포도	239,243	354,598	385,855	388,923	467,160	447,609	36.5%
살구,체리,자두	150,524	202,493	244,453	301,498	281,303	289,843	33.1%
기타견과류	42,393	32,764	145,648	39,052	245,515	54,476	108.0%
기타과일(신선)	133,563	204,736	182,557	242,311	220,163	295,369	27.4%
멜론,파파야	76,687	168,653	117,019	210,177	109,619	196,481	17.0%
기타과일(건조,)	41,652	90,610	65,436	112,650	82,491	119,358	38.1%
파인애플 아보카도	29,484	53,660	38,151	56,549	52,021	68,641	33.3%
기타	32,733	50,183	56,268	57,250	78,561	73,854	51.5%

자료 :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입 및 경쟁동향

- 감귤 및 오렌지는 대부분 전통적인 감귤생산국인 모로코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터키 그리고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집트, 중국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음. 수입규모는 832 백만불이며 이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12%에 불과한 실정임

- 포도의 경우 유통 채널의 부족으로 대부분 중앙 러시아 지역에 판매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포도 수요는 자국산 공급을 초과하여 소매상들은 대부분 수입산 공급에 의존하고 있음. 2007년 기준 수입액은 467백만불로 터키, 우즈베키스탄, 네덜란드, 중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음
- 33.1%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체리류는 포도와 비슷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 자국산 체리의 유통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며 주요 수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터키, 스페인, 키르기스스탄 등임

〈품목별 수입규모 및 한국산 점유율〉

(단위 : 천불, %)

	수입액		한국산 비중	수입국
	전체	한국		
감귤류 ²⁾	832,079	1,656	0.12%	모르코(211,751), 터키(179,424), 아르헨티나(104,077), 남아공(77,551), 이집트(67,831), 중국(57,607), 스페인(56,164), 한국(1,656)
사과	452,994	1	0%	폴란드(105,840), 중국(100,582), 아르헨티나(35,889), 이탈리아(26,856), 아제르바이잔(25,281), 프랑스(23,412), 몰도바(15,721), 한국(1)
배	314,779	13	0.004%	벨기에(108,100), 아르헨티나(74,266), 화란(49,645), 중국(25,028), 남아공(12,336), 프랑스(10,767), 스페인(7,928), 포르투갈(4,850), 한국(13)
포도	467,160	0	0%	터키(114,380), 우즈베키스탄(81,887), 칠레(44,383), 이란(38,416), 이탈리아(35,933), 아르헨티나(23,258), 키르기스스탄(21,277), 중국(21,248)
살구, 체리 자두	281,303	0	0%	우즈베키스탄(47,544), 터키(38,783), 스페인(38,676), 키르기스스탄(32,431)
딸기	44,210	22	0.05%	터키(23,356), 폴란드(5,702), 그리스(3,836), 벨기에(2,985), 화란(2,848), 스페인(2,305), 한국(22)

자료 : Global Trade Atlas

2) 오렌지, 자몽, 감귤, 레몬 등을 포함



【과실류 직판장】



【키오스크(페테르부르크)】

다. 소비동향

- 러시아 소비자의 연간 1인당 과실류 소비량은 약 34kg으로 이는 기타 유럽 국가 및 미국의 연간 소비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비실적임. 총 소비량 중 사과가 10.5kg으로(30%) 가장 많았으며 바나나는 4.5kg(13%), 오렌지 및 감귤류가 3kg(8%)를 차지함
- 러시아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향후에도 높은 품질의 과실류 시장규모가 확대될지라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으로 존재하며 낮은 가격의 과실류 소비시장이 가장 큰 시장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줌
- 러시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과실류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배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파인애플, 망고, 아보카도 등 열대 과실류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다만 열대 과실류의 선호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입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임

라. 유통동향

- 러시아에서 과실류는 주로 소매체인점, 과실류 식료품점, 직판장, 과실류 키오스크 등 주요 네 개의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최근에는 현대적인 소매체인점들이 시장 점유율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러시아에서 과실류 유통은 서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제르바이잔인, 아르메니아인 등 옛 소련의 남부 공화국 출신의 사람들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상인들의 영향력이 큼



【슈퍼마켓의 과일코너】



【도매시장(페테르부르크)】

마. 수입관련 제도

■ 살충제 허용치

	허용치(mg/kg)	비고
Hexachlorine-ceclohexan	0.1	
	0.5	채소류
	0.05	과실류
DDT와 관련물질	0.1	

■ 기타 통제요소

제품군	통제요소	허용치(mg/kg)	비고
채소류(신선, 냉동), 감자, 과실류, 베리류, 버섯류	독성물질, 납	0.5	
		0.4	과실류
	비소	0.2	
		0.5	
	카드뮴	0.02	
		0.05	
채소류	세슘-137	120	
	스트론시움-90	40	
과실류(포도)	세슘	40	
	스트론시움-90	30	

■ 품목별 관세율

품목명	기간	관세율
사과 (0808 10 200)	1.1 - 3.31	0.1유로/kg
	4.1 - 6.30	0.1유로/kg
	7.1 - 7.31	0.1유로/kg
	8.1 - 12.31	0.2유로/kg
배 (0808 20 100)	8.1 - 12.31	10%
포도 (0806 10 100)		5%

바. 한국산 과실류의 러시아 시장 진출여건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기후적 약조건 및 생산 증대의 한계성으로 과일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생산증가율 : 5%, 수입증가율 : 30%) ○ 최근 소득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과일에 대한 수요 증가 ○ 열대과일보다 사과, 배, 포도, 딸기류 등 온대과일에 대한 강한 선호 (선호도 : 사과>바나나>오렌지>포도>배) ○ 자원개발로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극동 러시아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 ○ 극동러시아 지역의 높은 소매시장 성장률 (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의 주력시장인 모스크바 및 서부 러시아 지역과의 먼 지리적 거리 ○ 수출가능품목인 감귤, 배 등의 중국산 제품과의 높은 경합성 ○ 미성숙한 유통구조 ○ 주력 타깃시장인 극동러시아 지역의 인구 유출 증가 ○ 까다로운 통관제도로 인해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업자에 의존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과실류에 비해 우수한 품질 및 위생조건 ○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미국, 유럽제품에 비해 가까운 운송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과실류에 비해 비싼 가격 ○ 국내가격 동향에 따라 변동되는 수출물량

【첨부】 블라디보스토크(극동러시아) 과일 시장동향

- 극동러시아 지역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과실류 생산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지역의 과실소비는 주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음. 2005년 공식 통계에 따르는 극동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7.78천톤으로 전체 러시아 생산량의 0.5% 만을 생산되었으며, 배 역시 420톤만이 생산되어 전체의 0.5%만이 생산됨
- 최근 루블화의 가치상승과 자원개발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력 증대는 과일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약 10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 워싱턴 사과와 미국 배에 대한 프로모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03년 이래로 극동지역 과실류 시장은 연간 15%~20% 가량 성장되고 있으며 수입산 과일은 주로 시베리아 철도나 선박을 통해 공급되며 약 70%가량이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칠레에서 수입되고 있음
- 2006년 극동러시아 지역은 약 134천톤, 80백만불의 과실류를 수입했는데 주요 수출국가로는 중국(53백만불), 필리핀(18백만불), 미국(3.2백만불), 호주(0.7백만불), 뉴질랜드(0.5백만불), 칠레(0.4백만불) 등이 있음
- 중국은 극동러시아 지역의 가장 큰 과실류 수출국으로 주로 사과, 배, 감귤, 오렌지 및 열대과일을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극동러시아의 과실류 수입의 67%(53백만불, 91천톤)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저가의 가격을 바탕으로 극동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안정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좋지 않아 중국산 과실류의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임. 특히 타국산 과실류와의 가격차이가 좁혀질 경우 소비자들은 구매형태가 중국산에서 타국산 과실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중국은 본국 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품의 품질 및 포장 개선,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으나 이는 중국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중국제품의 경쟁력 약화에 원인이 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04년 중국산 사과는 미국산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였으나 최근 2/3수준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곧 미국 및 타국산 과일의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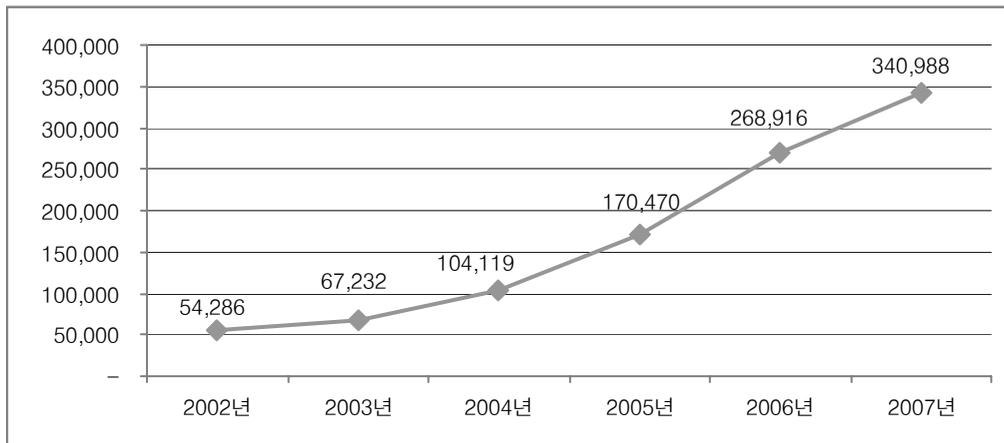
- 또한 극동지역 과실류 바이어들이 종래의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된 과실류를 주로 수입하였다면 최근에는 벨기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등 유럽, 남미지역에서 생산된 과실류의 수입량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며 한편 극동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실류는 사과, 바나나, 감귤류, 배 등임

3) USDA 보고서 참조

2. 감귤 시장동향

가. 일반개황

- 높은 수입증가율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감귤 수입규모는 340,988천불로 이중 5%인 17,048천불이 극동러시아로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면, 2002년 이후 44.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러시아 연도별 감귤⁴⁾ 수입액 (단위 : 천불)】

- 주 경쟁상품 중국 감귤 : 여름철 동안 극동러시아에서 주로 판매되는 감귤은 호주산 제품으로 경쟁상대가 없는 시기이어서 kg당 138루블의 고가에 판매되는 반면, 한국산이 주로 판매되는 겨울철의 경우 한국, 중국 모로코 등에서 다량의 제품이 유입되어 20~40루블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겨울철 현지 소비물량으로 보면 중국산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가능하면 다른 나라 제품으로 소비를 대체하고자 함. 반면 한국산 감귤에 대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2, 3년간 저품질에 한국산 제품이 극동러시아로 수출된 사례가 있어 한국산 감귤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국산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HS코드 080520 기준 Mandarins(Tang & Sats)Clementines & Wil- Kings &Sim Citrus

- 최고급품 일본 데코풍(한라봉)⁵⁾ : 현지에서 판매되는 최고가의 감귤류는 일본산 데코풍으로 kg당 566루블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이 제품은 높은 가격으로 수요가 그리 크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날개 단위로 포장되어 고급식품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일본산 데코풍】

- 바이어들의 포장개선 요구 증대 : 현재까지 러시아 소비자들은 과일 구매시 포장에는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나, 바이어들의 경우 제품 차별화의 방안으로 포장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필요함

나. 수입현황

■ 국가별 수입동향

- 러시아로 수입되는 감귤 규모는 340,988천불, 469,516톤으로 매년 44.4%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전체 러시아 수입량 중 약 5%인 17,048천불, 23,476톤이 극동러시아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감귤은 모로코(126,448천불), 터키(61,029), 중국(40,933), 스페인(31,400), 한국(1,656), 호주(288)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극동러시아에서는 모로코, 중국, 한국, 호주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5) 일반 감귤을 개량한 품종으로 한국의 한라봉과 유사

(단위 : 천불,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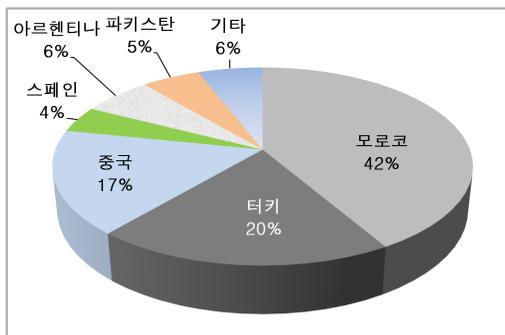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 체	170,470	319,214	268,916	431,397	340,988	469,516
모로코	64,530	106,797	108,827	153,944	126,448	147,517
터 키	30,592	66,942	56,900	96,281	61,029	95,846
중 국	26,397	41,284	29,398	41,380	40,933	56,918
스페인	6,670	11,642	9,377	14,655	31,400	40,341
아르헨티나	9,773	18,078	15,864	26,727	21,804	33,071
파키스탄	8,229	15,401	17,743	32,797	15,007	22,938
이스라엘	5,541	12,091	5,310	9,147	12,515	19,066
남아공	2,972	5,575	4,726	7,577	4,889	7,282
한 국	122	230	751	1,331	1,656	2,634
브라질	417	829	403	615	492	745
호 주	52	96	105	181	288	369
칠 레	9	20	110	141	213	295
태 국	0	0	54	11	123	35
일 본	-	-	-	-	30	4
기 타	9,112	18,841	11,458	19,003	20,205	30,431

자료 : 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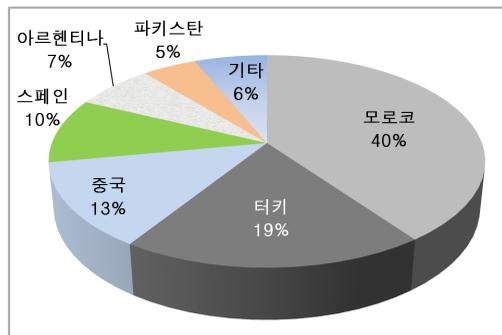
주) HS코드 : 080520, Mandarins(Tang & Sats)Clementines & Wil- Kings

■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입단가

- 2005년도와 2007년도의 파프리카 수입국별 점유율을 보면, 모로코와 터키의 비중은 각각 40%,와 19%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중국산은 17%에서 13%로 감소세를 보였고 스페인산이 4%에서 10%로 소폭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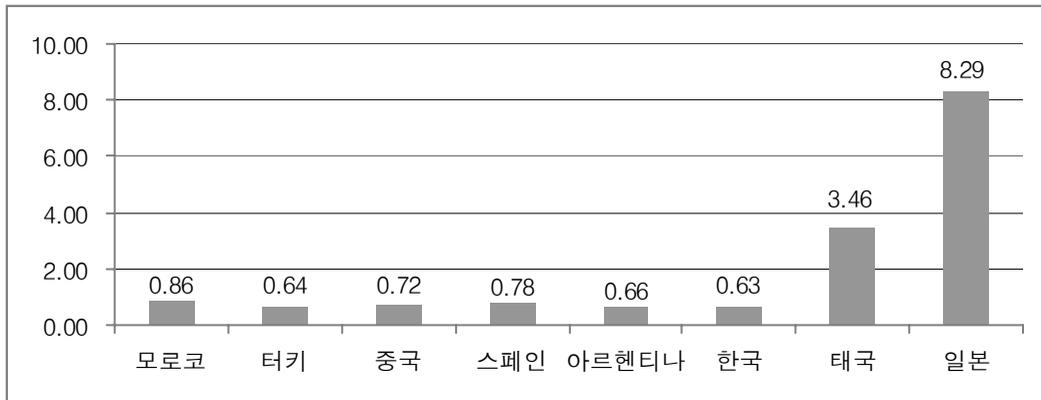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 러시아 수입 파프리카의 수입통계 상의 단가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감귤의 kg당 1불 이하의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으나, 일본과 태국 제품만이 각각 3.46루블/kg, 8.29루블/kg으로 높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음. 이는 시기적으로 경쟁이 적은 여름에 수출된다는 점과 고가품인 데코풍 위주의 수출제품 구성이 주요인으로 추정됨



【원산지별 감귤 수입단가】

다. 경쟁동향

■ 가격동향

(단위 : 루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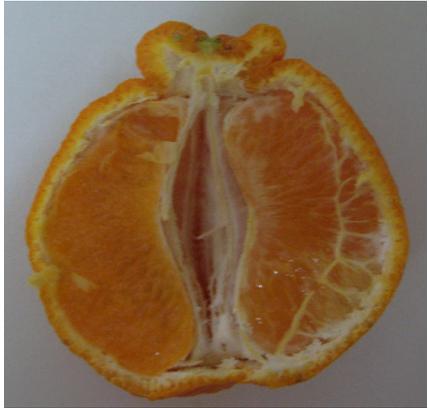
	일본(데코풍)	호주	한국	중국
하절기	566	138	-	-
동절기	-	-	25-40	15-3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조사 (2008. 7)

- 원산지별 경쟁이 심하지 않는 여름에는 거의 호주산 감귤만이 독점적으로 공급되어 비교적 높은 가격인 kg당 138루블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다양한 국가의 감귤이 수입되는 겨울의 경우 국가별 경쟁이 심해 한국산은 25루블에서 40루블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중국산의 경우 15루블에서 30루블 사이의 가격이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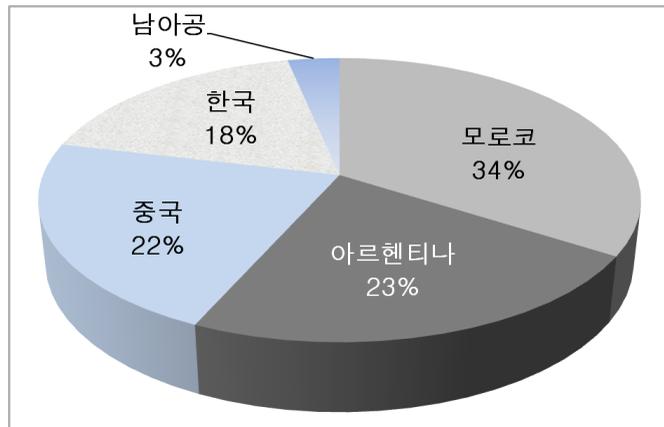
- 한국과 중국산의 감귤이 가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제품 간의 품질 차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최고가에 팔리고 있는 데코풍 등 일본산 과실류의 경우 지속적인 현지 시장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1년에 2회의 판촉전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을 보이고 있음

■ 감귤 제품 비교

원산지	일본(데코풍)	호주 감귤
사진		
가격	566루블/kg	138루블/kg
특징	당도가 매우 높고 보존기간이 길어 여름철에 주로 판매됨	당도는 높으나 씨가 있어 먹기가 불편함
사진(절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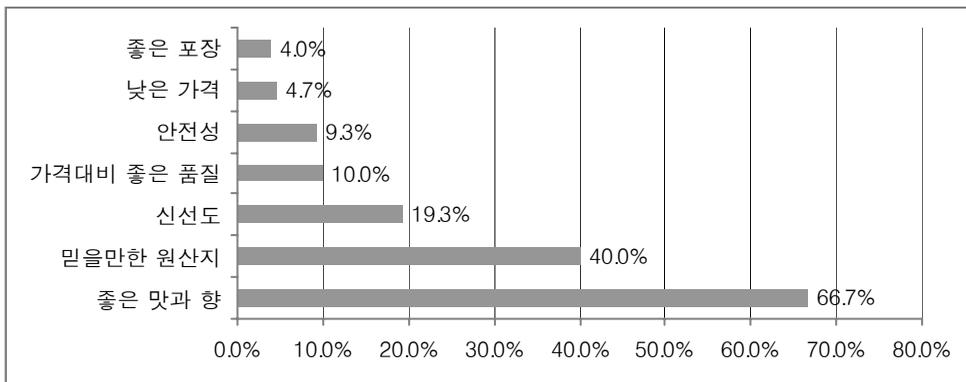
■ 소비자 선호도⁶⁾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원산지별 선호도를 보면,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감귤은 모로코산 감귤로 전체 소비자의 34%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밝힘. 그 뒤로는 아르헨티나(23%), 중국(22%), 한국(18%)산 제품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원산지별 소비자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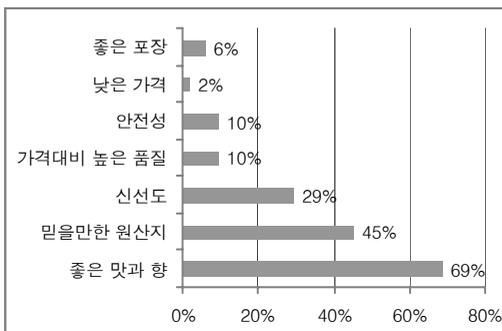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좋은 맛과 향으로 전체 소비자의 66.7%가 고려한다고 밝힘. 그리고 믿을만한 원산지 40%, 신선도 19.3% 순으로 나타남. 반면 낮은 가격(4.7%), 좋은 포장(4.0%) 등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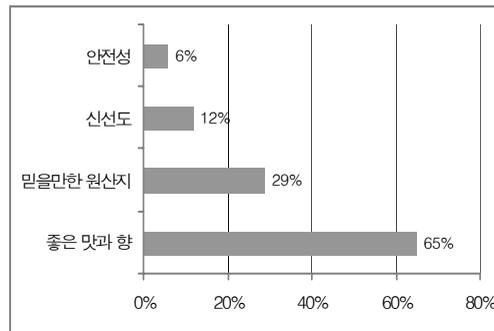
【감귤 구매시 고려사항】

6)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남녀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로코 제품의 구매이유로는 모로코 감귤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69%가 맛과 향을 꼽았으며, 믿을만한 원산지(45%), 신선도(29%)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대비 품질, 안전성 등도 구매 사유로 작용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감귤의 구매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는데 좋은 맛과 향, 믿을만한 원산지, 신선도, 안전성 순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좋은 맛과 향의 경우 아르헨티나 감귤 소비자의 65%가 구매사유로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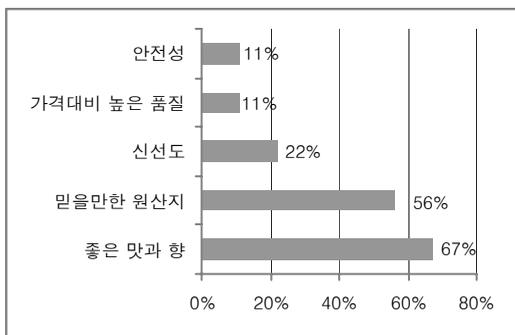


【원산지별 구매이유 : 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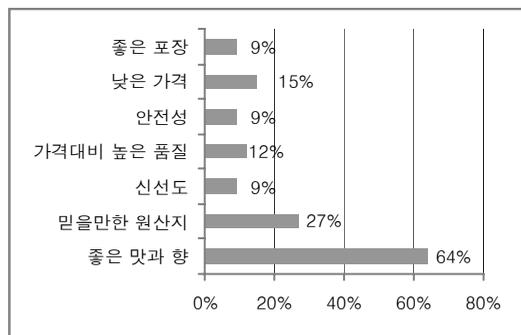


【원산지별 구매이유 : 아르헨티나】

- 한국산 제품의 구매사유는 좋은 맛과 향, 믿을만한 원산지, 신선도, 가격대비 높은 품질, 안전성 등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믿을 만한 원산지가 구매사유로 비교적 높게 작용하고 있음(전체 한국 감귤 소비자의 56% 고려)
- 중국산 감귤의 경우, 다른 제품 구매시 특성에는 잘 보이지 않는 낮은 가격이 감귤 구매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산지별 구매이유 : 한국】



【원산지별 구매이유 : 중국】

라. 유통동향

- 현재 한국에서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과실류로는 온주밀감이 대표적이며, 주로 대형마트를 통해 상위 10%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음. 바이어들은 박스 단위로 감귤을 수입해 벌크 단위로 판매하기 보다는 kg 단위로 소포장을 한 후 매대에 진열하고 있음
- 한국산 감귤의 주요 경쟁 상대는 중국산 감귤인데 품질은 한국산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성 및 품질에 대한 불안감으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도매시장과 대형식품 매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감귤의 경우 종이 박스로 포장되어 선박을 이용해 주로 수출되고 있어 운송 도중 부패되거나 제품이 눌리는 사례가 있어 감귤의 방부처리를 요청하기도 하나, 중국산의 경우 흠이 난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해 차량을 통해 운송되어 통관시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가 한국산에 비해 현저하게 적음
- 호주산 감귤의 경우, 여름철 동안 배를 통해 수입되어 우수리스크의 도매시장을 통해 극동러시아 전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감귤 소비가 주로 겨울철에 증가하므로 소비량이 그리 크지는 못한 실정임



【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주산 감귤(100루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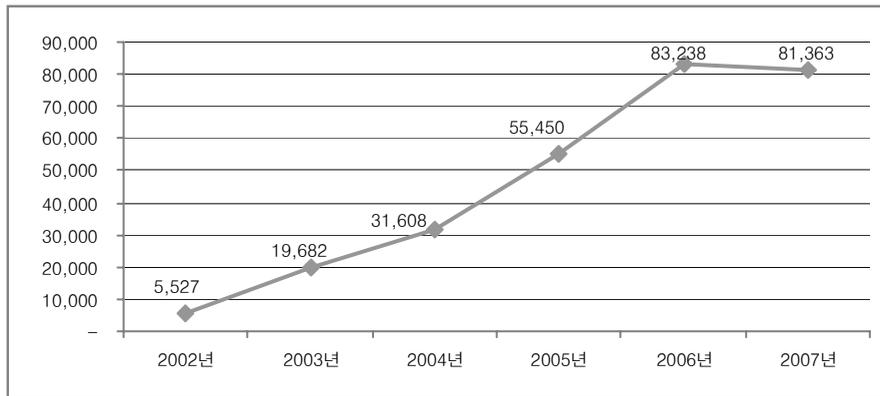
마. 한국산 진출여건 및 확대방안

- 지속적인 고품질 제품 공급 : 한국산 감귤에 대해서는 현지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2, 3년간 저품질에 한국산 제품이 극동러시아로 수출된 사례가 있어 한국산 감귤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고품질 제품 공급을 통한 긍정적인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 지속 노력이 필요함
- 한라봉 등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공략 : 현지 고가 감귤류시장은 대부분 감귤류 공급이 적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일본산 데코풍이 점유하고 있는데, 품질 및 가격 측면에서 한국산 한라봉의 경쟁력이 뛰어나므로 일본산을 대체하기 위한 시장 공략시 진출 가능성이 큼
- 유통경로 다각화 : 고가의 한국산 감귤의 지속적인 현지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대형식품 매장을 통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고급식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식당의 후식메뉴로의 공급을 통한 유통채널 다각화가 필요함
- 꾸준한 물량공급 : 현지 바이어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중 하나가 꾸준하지 국내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공급 물량 및 가격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Korea Premium 활용 : 극동러시아 시장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이를 활용해 한국산 제품임을 나타내는 상표를 부착시 제품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일부 바이어는 한국어로 상표 표기시 현지 소비자 인식이 어렵고, 러시아어 표기 시에는 위조된 상표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문으로 “Made in Korea”라는 표기를 희망하기도 함

3. 멜론 시장동향

가. 일반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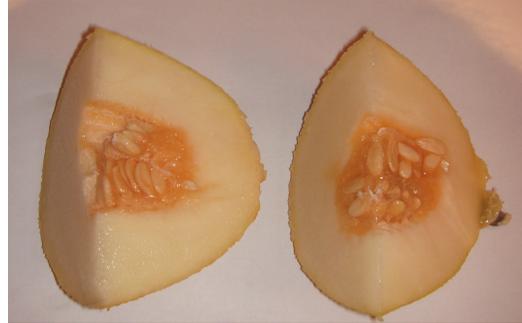
- 높은 수입증가율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멜론 수입규모는 81,363천불로 이중 5%인 4,608천불이 극동러시아로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연평균 수입증가율을 보면, 2007년에 약간 감소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2002년 이후 42.6%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 연도별 멜론 수입액 (단위 : 천불)】

- 원산지별 유통구조 구분 : 극동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멜론의 80%를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멜론은 재래시장 및 과실류 잡화점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반면, 브라질, 일본 멜론은 대형 식품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중국산의 경우에는 재래시장, 대형식품매장 등 모든 장소에서 유통되어 가장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 소량의 고가품 유통 : 현지에서 고가에 유통되는 일본 및 태국산 멜론의 경우, 과실류의 생산 및 수입이 적은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지며, 일본산 멜론의 경우 소매가격이 kg당 3,000루블에 이를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기도 함
- 시장의 중심, 우즈베크 멜론 : 시장에서 유통되는 멜론의 80%는 우즈베키스탄 멜론으로 이 멜론은 외양은 한국의 호박처럼 노란 긴 타원형으로 그리 외형이 튀어나지 않고, 원산지로부터 기차로 운반되다보니 파손되는 사례도 많으나 당도가 높아 시장에서 kg 당 200루블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무네트 멜론 중심 판매 : 극동러시아 현지에서 주로 판매되는 멜론은 주로 브라질,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무네트 멜론이나 우즈베크에서 생산된 호박모양의 멜론이 대부분이며, 소량의 일본산 네트 메론이 수입 유통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멜론】

나. 수입현황

■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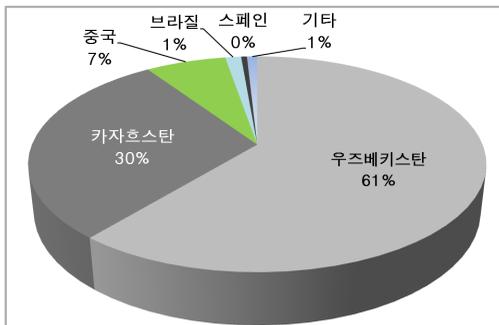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체	55,450	98,590	83,238	139,252	81,363	129,660
우즈베키스탄	33,843	59,875	49,441	84,580	40,073	70,727
카자흐스탄	16,370	30,514	25,226	42,265	32,359	49,774
중국	3,748	5,603	5,452	7,804	2,430	2,270
브라질	741	1,436	1,121	1,383	2,047	1,634
스페인	271	471	545	694	1,097	905
타지키스탄	-	-	71	169	922	1,694
키르기스스탄	20	42	7	18	640	843
이란	0	0	101	183	120	102
모로코	9	21	11	12	113	79
터키	15	29	10	20	103	79
이탈리아	16	8	33	15	75	41
태국	22	4	28	5	71	14
일본	-	-	0.06	0.05	11.12	1.57
기타	396	584	1,191	2,104	1,301	1,495

자료 : 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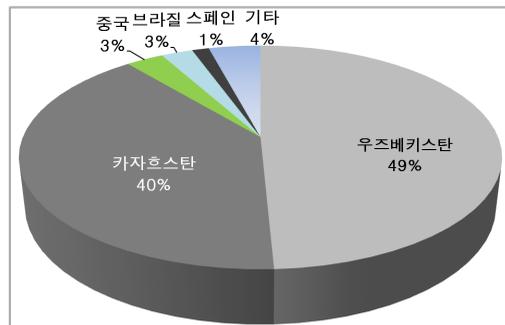
주) HS코드 : 080719, Melons, Nes, Fresh

- 2007년 기준 러시아의 멜론 수입량은 81,363천불, 129,660톤으로 2005년의 55,450천불, 98,590톤과 비교하여 금액기준 21.1% 증가세를 보임. 이 중 약 5%인 4,608천불, 6,483톤이 극동러시아로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국가별 수입규모를 비교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금액 기준 49%를 차지하는 40,073천불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카자흐스탄(32,359천불), 중국(2,430), 브라질(2,047), 스페인(1,097)순으로 수입되고 있음
- 고가 고품질의 멜론의 경우 일본과 태국에서 수입되는 규모가 71천불, 11.12천불 정도 아직까지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극동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멜론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중국, 브라질, 일본 등에서 수입된 것들임

■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입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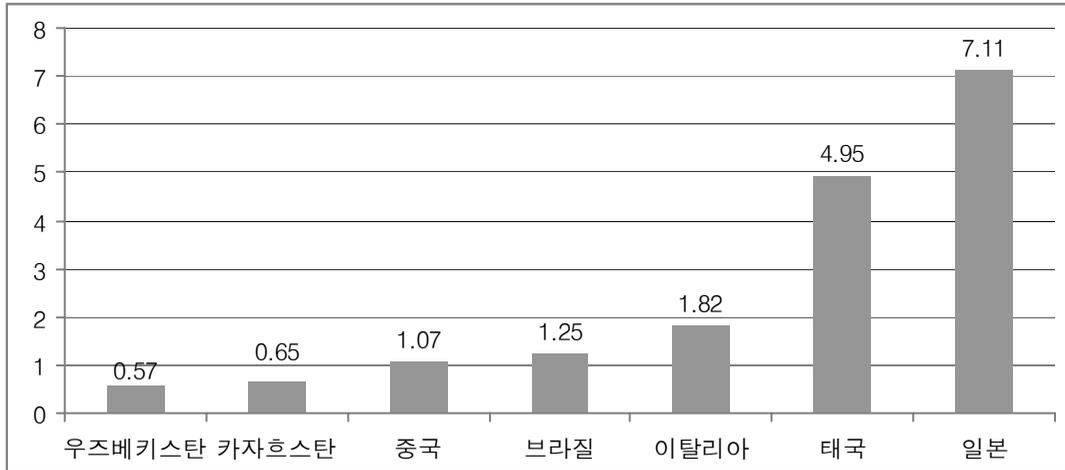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 2005년도와 2007년도의 멜론 수입국별 점유율을 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61%에서 49%로, 7%에서 3%로 감소한 반면, 카자흐스탄은 30%에서 40%, 브라질이 1%에서 3%로 비중이 증가했음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그리고 기타 국가들이 나머지 10%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러시아 통계상의 수입단가를 비교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브라질이 각각 0.57루블/kg, 0.65루블/kg, 1.07루블/kg, 브라질 1.25루블/kg로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반면, 태국과 일본의 경우 4.95루블/kg, 일본 7.11/kg로 비교적 고단가에 수입되고 있음



【원산지별 멜론 수입단가】

다. 경쟁동향

- 멜론의 시장구조는 크게 중국산 제품 중심의 저가시장과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제품 중심의 중가시장, 그리고 일본 태국산 중심의 고가시장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
-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멜론은 중간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멜론으로 주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kg당 200루블에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중간제품인 브라질산 멜론의 경우 대형식품매장을 중심으로 kg당 335루블에 유통되고 있으나 그리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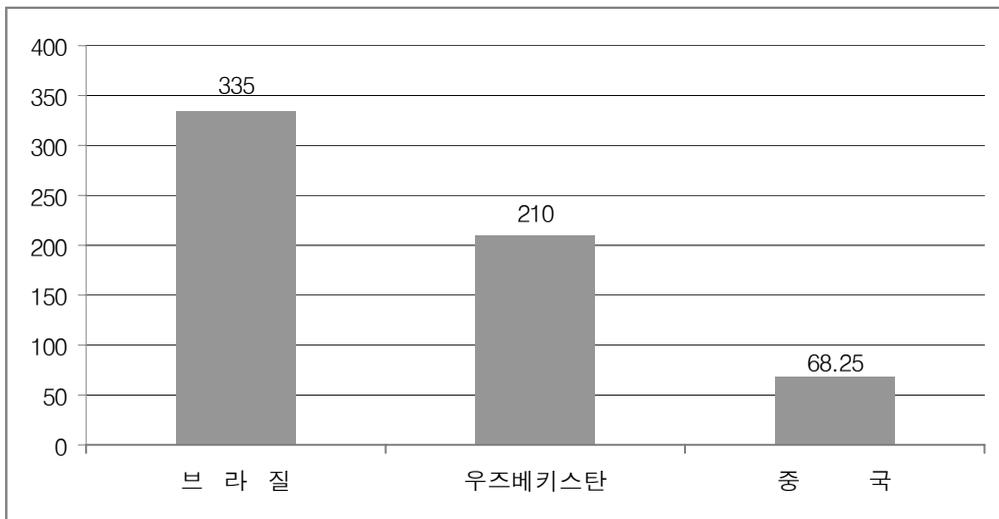


【브라질산 멜론】



【중국산 멜론】

- kg당 68.25루블의 저가로 유통되는 중국산 멜론의 대형식품매장부터 재래시장까지 넓은 범위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당도가 낮아 저소득 소비자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 고가제품인 태국, 일본산 멜론의 경우, 경쟁 국가들의 멜론제품의 공급이 없는 겨울에 주로 수입되어 kg당 2,000루블에서 3,000루블 사이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나 대형식품매장 판매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지 물가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리 판매가 많은 편은 아님
- 2008년 7월 기준 극동러시아에서 유통되는 멜론의 평균 거래 가격을 비교해보면 브라질 제품이 kg당 335루블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산은 평균 68.25루블로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7월부터 9월까지 극동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우즈베키스탄 멜론의 경우 kg당 210루블의 중간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음



【원산지별 멜론 평균 소매가격】

- 유통매장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브라질 산은 벨라제르에서는 kg당 345루블로 스에라마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반면, 중국산은 스에라마트에서 kg당 84루블로 가장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매장별 멜론 가격 포지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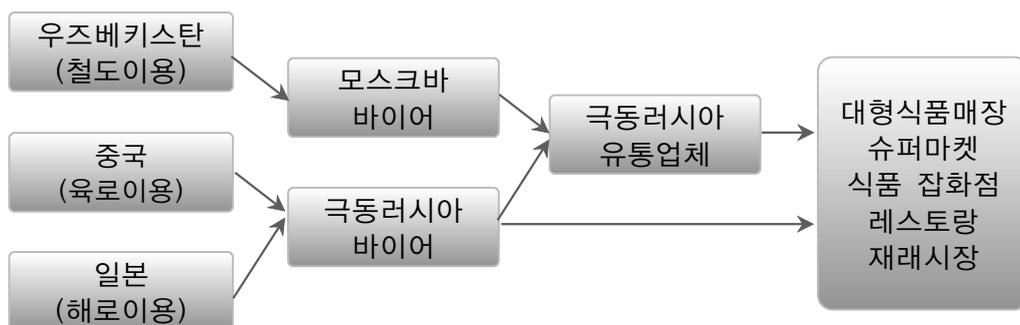
(단위 : 루블/kg)

	벨라제르	스에라마트	재래시장(루가와야)	재래시장(두르즈바)
브 라 질	345	325	-	-
중 국	69	84	60	60
우즈베키스탄	-	-	200	22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조사 (2008. 7)

라. 유통동향

- 극동러시아의 멜론의 유통경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경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어 모스크바 딜러를 통해 TSR⁷⁾로 운송됨. 현지 바이어의 의견에 따르면 이 경우, 대부분 냉장컨테이너보다는 일반컨테이너로 운송되어 운송 도중 제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음
- 중국산 멜론의 경우 다른 과채류와 마찬가지로 트럭을 이용해 육로로 하여 우수리스크의 도매시장을 통해 극동러시아 각지로 운송됨. 끝으로 일본산 제품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항이나 니혼카 항을 통해 극동러시아로 직접 수입되고 있음



【극동 러시아 멜론 유통구조】

7) 시베리아 횡단철도 (Trans-Siberian Railroad)

- 극동러시아에서 멜론은 크게 대형식품매장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일본, 브라질산 제품은 주로 대형식품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반면, 극동러시아 멜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 멜론은 재래시장을 통해서만 유통되는 특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중국산 멜론의 경우, 대형식품매장, 재래시장 양쪽 모두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가장 넓은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 현재까지 멜론 구매는 대부분 재래시장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식품매장을 통한 멜론 구매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므로, 대형식품매장에 차별화된 제품 공급시 새로운 판매망 개척이 유력하리라 사료됨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즈벡 중국 멜론】

마. 한국산 진출여건 및 확대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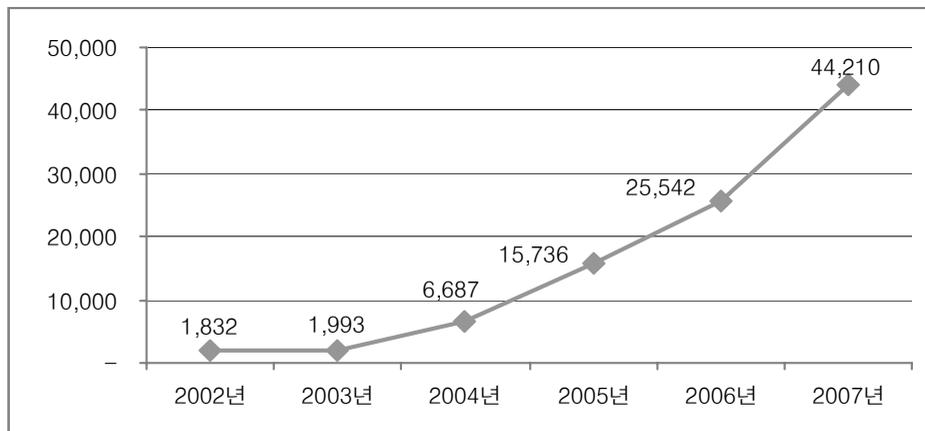
- 선물용품 Positioning : 한국산 멜론의 약점인 높은 생산원가를 극복하고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주력 제품인 우즈베키스탄 멜론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한국 네트멜론의 고급스런 모양에 개별 고급 포장을 더해 선물용 제품으로서의 마켓 포지셔닝이 필요함. 특히 연말, 연초 등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시기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선물용품으로서의 자리매김 노력이 필요함
- 7월-9월 피하라 : 7월과 9월 사이에는 증가의 우즈베키스탄 멜론이과 극동러시아 현지산의 수박제품의 대량 유입되는 시기이어서 고가의 외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적은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피한 제품 공급이 필요함

- 유통경로 다각화 : 고가의 한국산 멜론의 지속적인 현지 소비 유도를 위해서는 대형식품 매장을 통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고급식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식당의 후식메뉴로의 공급을 통한 공급채널 다각화가 필요함
- 꾸준한 물량공급 : 현지 바이어들이 느끼는 불편한 점 중 하나가 국내 여건에 따라 변동하는 공급 물량 및 가격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속적인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Korea Premium 활용 : 극동러시아 시장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이를 활용해 한국산 제품임을 나타내는 상표 부착해 제품 소비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일부 바이어는 한국어로 상표 표기시 현지 소비자 인식이 어렵고, 러시아어 표기 시에는 위조된 상표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어로 “Made in Korea”라는 상표 제작을 희망하기도 함

4. 딸기 시장동향

가. 일반개황

- 작은 시장규모, 자국산 중심 소비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딸기를 구입하기 보다는 도시 근교의 생산된 크기가 작고 무른 현지 딸기를 주로 소비하고 있어 수입딸기 시장규모는 아직까지 그리 큰 편은 아님. 그러나 최근 과일 소비가 다각화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입 딸기에 대한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음
- 높은 수입증가율 : 2007년 기준 전체 러시아 딸기 수입액은 44,210천불로 러시아 전체 과일 수입의 1.2% 차지함. 이 중 약 5%가량이 2,210천불이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89%로 높은 수입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러시아 연도별 딸기 수입액 (단위 : 천불)】

- 신선도 중시 : 현지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딸기 구매시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신선도로 나타나 좋은 맛과 향을 중시하는 타과일과는 다른 선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딸기 수출시 신선도 유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관심이 필요함

나. 수입현황

■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톤)

	2005		2006		2007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전 체	15,736	13,458	25,542	18,737	44,210	22,621
터 키	3,076	2,973	8,542	6,548	23,356	12,191
폴란드	6,368	5,158	7,657	5,808	5,702	2,917
그리스	105	101	907	698	3,836	1,967
벨기에	768	631	1,715	1,284	2,985	1,615
네덜란드	1,113	853	1,697	974	2,848	1,494
스페인	2,175	2,067	2,590	1,953	2,305	1,124
이스라엘	247	130	610	255	1,152	435
이집트	138	69	143	62	466	192
중 국	32	20	204	127	298	152
우즈베키스탄	150	69	110	41	198	54
미 국	55	19	49	17	185	51
한 국	-	-	-	-	21.58	3.62
일 본	-	-	-	-	7.34	0.23
기 타	1,508	1,367	1,317	972	848	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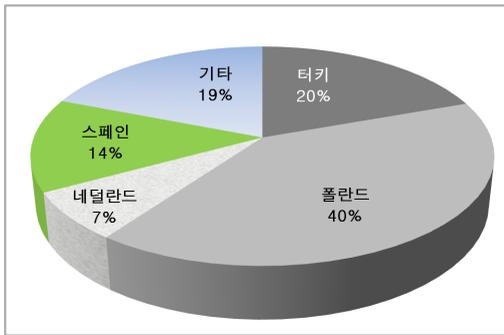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주) HS코드 : 081010, Strawberries, Fre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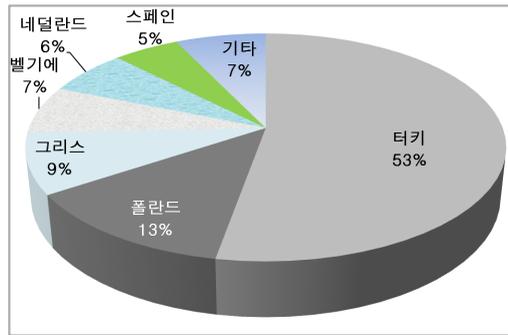
- 러시아로 수입되는 딸기의 규모는 44,210천불, 22,621톤으로 매년 89%의 높은 수입증가율의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약 5%인 2,211천불, 1,131톤이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의 국가별 수입규모를 보면, 터키(23,356천불), 폴란드(5,702), 그리스(3,836) 등 동유럽의 국가들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나, 극동러시아 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미국(185), 네덜란드(2,848), 중국(298), 한국(21.58)등에서 수입된 딸기들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

■ 국가별 시장 점유율 및 수입단가

- 2005년과 2007년의 딸기 수입국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터키의 시장 점유율의 20%에서 53%로 크게 증가된 반면, 폴란드는 40%에서 13%로 감소했고 스페인 역시 14%에서 5%로 감소함. 극동러시아 지역에 수입되는 미국, 중국 및 한국산 제품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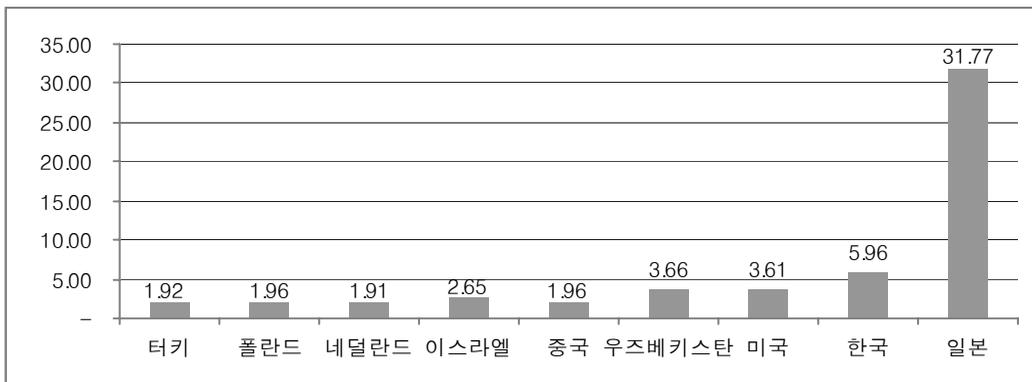


【2005년 국가별 수입비중】



【2007년 국가별 수입비중】

- 원산지별 딸기 수입단가를 비교해 보면, 터키,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생산된 딸기와 중국산 딸기는 kg당 1.92불, 1.96불, 1.96불로 저가에 수입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미국산 딸기는 kg당 3.66달러, 3.61달러에, 그리고 한국산은 이보다 더 비싼 5.96 불에 수입되고 있음. 일본산 딸기의 경우 kg당 31.77불로 소량이지만 시장에서 최고 단가에 수입되고 있음



【원산지별 딸기 수입단가】

다. 경쟁동향

■ 가격동향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딸기를 구입하기보다는 도시 근교에서 생산한 크기가 작고 무른 현지 딸기를 주로 소비하고 있어 수입딸기 유통규모는 아직까지 그리 큰 편은 아님
- 그러나 최근 미국 및 네덜란드, 중국, 한국 등의 제품이 대형식품매장을 통해 소개되고, 현지 소비자들의 과일소비가 다각화되면서부터 수입딸기에 대한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지에서 판매되는 딸기의 가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딸기가 대형식품매장에서 kg당 675루블, 미국산이 798루블에 유통되는 반면 한국산 딸기는 이보다 비싼 kg당 1,200루블에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250g 단위로 포장되어 300루블에 판매되고 있음
- 현지에서 유통되는 딸기들의 포장형태는 종이팩에 딸기를 넣은 후 랩으로 감싼 형태로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지 못하며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음

원산지	미국	네덜란드	한국
가격	798루블/kg	675루블/kg	1,200루블/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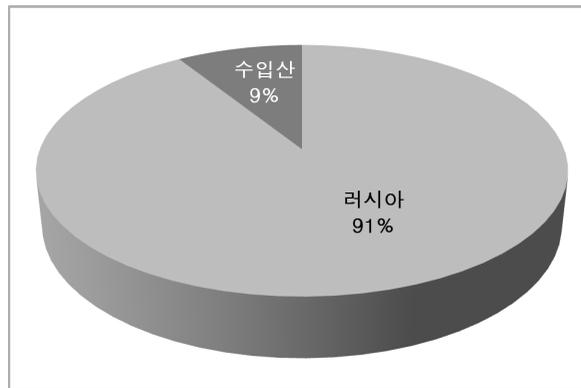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체조사 (2008. 7)



【대형식품 매장을 통해 판매되는 딸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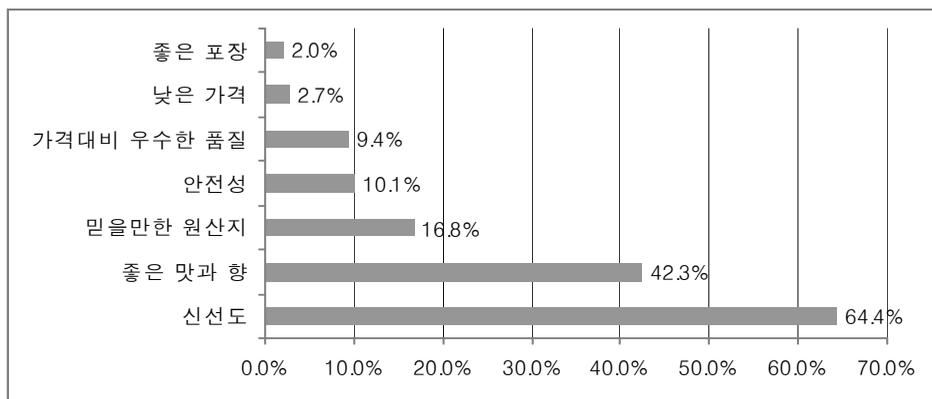
■ 소비자 선호도⁸⁾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의 원산지별 딸기 선호도를 보면, 전체 소비자의 91%가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된 딸기를 선호하며, 약 9%만이 외부에서 수입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음.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선도 유지가 쉬운 중국딸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원산지별 소비자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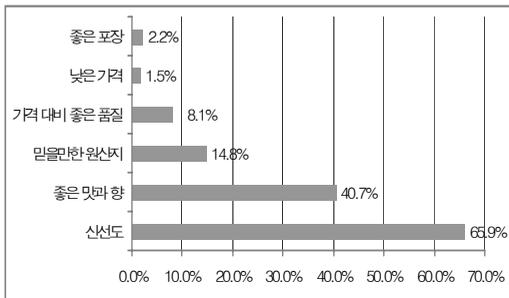
- 극동 러시아 소비자들이 딸기 구매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선도로 전체 소비자의 54.4%가 고려한다고 밝힘. 그리고 좋은 맛과 향(42.3%), 믿을만한 원산지(16.8%), 안전성(10.1%), 가격대비 우수한 품질(9.4%)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낮은 가격과 좋은 포장은 아직까지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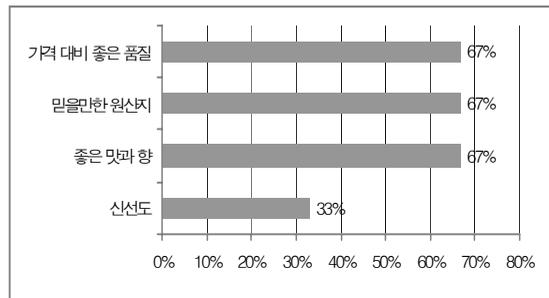
【딸기 구매시 고려사항】

8)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남녀 소비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극동러시아 소비자의 91%가 선호하는 러시아 현지 제품의 구매 이유로는 신선도(65.9%), 좋은 맛과 향(40.7%), 믿을만한 원산지(14.8%) 순으로 나타나 현지 소비자들이 딸기 구입시 고려사항과 유사한 구조를 보임
- 반면 한국산의 경우, 좋은 맛과 향(67%), 믿을만한 원산지(67%), 가격대비 좋은 품질(67%)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딸기 구입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선도에 대해서는 33%로 비교적 낮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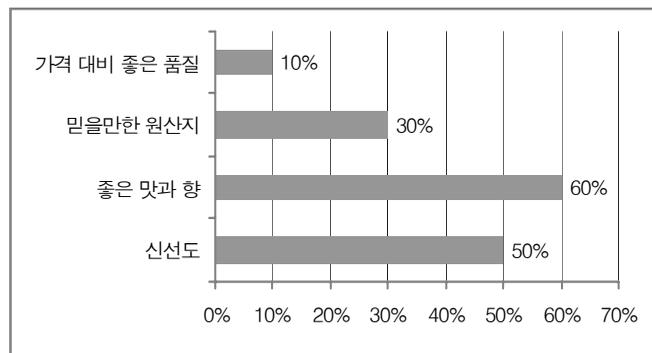


【원산지별 구매이유 : 러시아】



【원산지별 구매이유 : 한국】

- 중국산의 경우 좋은 맛과 향(60%), 신선도(50%), 믿을만한 원산지(30%) 순으로 나타나, 신선도 면에서는 한국산에 비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반면, 믿을만한 원산지 면에서는 한국산이 더 좋은 반응을 얻음



【원산지별 구매이유 : 중국】

라. 유통동향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딸기를 구입하기 보다는 도시 근교에서 생산된 크기가 작고 무른 현지 딸기를 주로 소비하고 있어 수입딸기 유통규모는 아직까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최근 미국, 네덜란드, 중국, 한국 등의 제품이 대형식품매장을 통해 소개되고, 현지 소비자들의 과일소비가 다각화되면서부터 수입딸기에 대한 수요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대부분의 수입산 딸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대부분 항공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을 통해 수입이 되고 있으나 중국산 제품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육로를 통해 수입되고 있음. 그리고 현지에서 유통 역시 도매시장보다는 대형식품매장의 냉장코너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 현지에서 유통되는 딸기들의 포장형태는 종이팩에 딸기를 넣은 후 랩으로 감싼 형태로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지 못하며 습도에 많은 영향을 받음

마. 한국산 진출여건 및 확대방안

- **적극적 홍보** : 타과일과는 달리 딸기의 경우 극동러시아 소비자들 대부분이 수입산 딸기보다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작고 무른 딸기 소비를 선호⁹⁾하고 있어 초기 시장 진입시 단단하고 과육이 큰 한국산 딸기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함
- **신선도 유지** : 극동러시아 소비자들이 딸기 구입시 맛이나 향보다도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므로 딸기 수출시 신선도가 유지되어야만 현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한국산 딸기에 대한 현지 인지도를 보면 맛과 향, 그리고 원산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나 신선도 부문에서는 중국산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포장 차별화** : 현지에서 유통되는 수입딸기의 대부분이 종이포장에 랩을 씌운 형태이어서 대부분 습도에 약하고 눌림 현상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 딸기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수출될시 기존제품과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9) 전체 소비자의 약 90%가 현지산 딸기 선호